사랑하는 세계 선교 동역자 여러분들께
기쁘다 구주 오셨네… 동방 박사 세 사람… 참 반가운 신도여… 그 어린 주 예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천사
찬송하기를… 성탄 찬송이 잔잔히 흘러 나오는 가운데 저는 치료하고 있고 환자들은 누워 있습니다. 가사가
없는 곡이지만 그 어디에도 캐롤 송이 들리지 않는 이 곳에서 저의 병실에서 찬송이 가득합니다. 어떤 환자가
말을 합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구했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저희들은 이 곳 타지키스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염려와 기도와 후원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벌써 끝났어야만 했을 것 같은 코로나 팬데믹은
그 모양을 바꾸어 가며 집요하게 인류를 괴롭히고 있고 거기에다 인간들의 이해 관계가 얽혀 더 복잡한
양상으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아리를 틀어가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일상이 되어가는 펜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정을 적지 않게 찾아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듯 합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곳은 마스크 살 돈도 넉넉치 않고 생활고에 대한 염려가 펜데믹에 대한 염려 보다 더
한 곳이기에 길에서 마스크를 한 사람을 찾아 보기가 쉽지 않은 곳 입니다. 어쩌다 단속이 강화되면 조금
쓰는 척 하다가 새까맣게 닳은 마스크를 다시 벗어 마스크 보다 더 불결한 주머니 속으로 집어 넣어 버리고
자기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여러번 코로나에 감염되었으므로 더 이상 염려 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하고 이상할 정도로 담대하고 담담하게 코로나 속에서 살아 가고 있습니다. 이 같이 세상은 또 다른
평정을 찾아 가면서 일상으로 돌아 가고 있습니다.
제가 1 년 복수 노동 비자를 받고 현지 병원에 취직 하여 일을 하게 된 것도 벌써 3 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노동 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현재는 현지 노동부에 노동 허가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현지 병원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 베푸심을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약간 힘들지만
저희의 부족한 손길을 통하여 매일 찾아오는 환자들이 고통과 절망으로부터 놓임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환자들과 약한 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셨던 주님의 사역을 마음에 새기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환자들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5 학년 때부터 오른 쪽 다리가 가늘어지고 뼈에 변형이 생겨서 걸음 걸이가 틀어진 20 대 여성이
찾아 왔습니다. 마사지사로 일하는 현지 ㄱㅎ 자매 한 사람이 데리고 왔는데 마사지로써 할 것은 다 해
보았는데 더 이상 진전이 없어서 나를 찾아 온 것이었습니다. 오른쪽 다리 허벅지가 왼 편에 비하여 현저하게
가늘고 발목에는 변형이 생겨서 발목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 자매였습니다. 자신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고
결혼하는 것이 평생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하이힐을 신으면 발목이 밖으로 꺽어지면서 다리를 다치게 되고
약간 높은 신발을 신어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한달 정도 치료했는데 지금은 걸음
걸이도 많이 바르게 되었고 발목도 뒤어 젖혀지기 시작하여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곧 하이힐을 신고 병원에 와서 걸음걸이 교정을 받겠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현지 고려인 자매 인데 왼 쪽 다리에 통증이 심하여 병원에 가보니 뼈에 약간의 돌기가
생겨서 그렇다고해서 수술을 받은 20 대 자매였습니다. 수술 후에 멀쩡하던 다리를 절게 되어 저를 찾아
왔습니다. 어릴 때 교회 다닌 적이 있었던 자매여서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통증 한

가지를 치료하면 또 다른 통증이 나타나고 또 그것을 치료하면 또 다른 통증이 나타나고 해서 한달 정도의
치료에 난항을 겪었지만 지금은 다리도 절지 않고 통증도 많이 사라져 아주 해 맑은 웃음으로 클리닉을 찾아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시 나가겠다고 해서 신실한 교회를 찾아 나갈 수 있기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곳의 외국인 학교 미국인 교사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통풍으로 오른 쪽 발목과 발이 부어서 지팡이를 의지하고도 겨우 걸을 수 있는 60 대 여성이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은 병실 까지도 오지 못해서 복도의 소파에 앉아서 겨우 치료를 받았습니다. 침을 맞자 마자 약간
통증이 사라졌고 치료 후에는 계단을 내려가는 것 외에는 혼자 수월하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열번 치료를
받고 난 이후에는 지팡이 없이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정도로 만족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을 뛸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통풍의 통증으로 온 몸이 뒤 틀어진 그녀였지만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 합니다”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약간 친해지고 나자 제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저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저의 부모님은 선교사 였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통풍이 왔다고 했었는데 선교사의 딸이라니…! 저는 이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 자신의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사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한 경우는 모든 식구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유독 부인 한 사람만
무신론자로 남아 있는 특이한 경우 였습니다. 신장이 아파서 무척 고통스러워 한다고 해서 교회로 불러서

주일에 치료를 해 주었습니다. 치료하기 전에 “당신은 왜 예수를 믿지 않는냐?”고 물으니 자신은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고 대답 하면서 완강하게 예수 믿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침을 놓고 난 뒤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믿음 때문 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은 것도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요, 차를 타고 온 것도 이 차가 나를 교회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요, 나에게 침을 맞는 것도 이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고 치료해 줄 것을 믿는 믿음 때문 입니다.
당신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온통 믿음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왜 믿어야 하는지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설명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때 주님께서 저에게 각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중요한 사역이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역의
새로운 지평을 보여 주셨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 성도가 저를 찾아와 “제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제
아내에게 더 필요한 것은 육신의 건강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입니다.” 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날 때 마다 한 지역 교회에 가서 의료 봉사를 했더니 주님께서 전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치료할 때 마다 오랫동안 병 낫기를 기도했던 사람들이 몇 번의 치료로 몇 년,
때로는 수 십 년의 고생이 끝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각 영혼들을 그들의 때에 부르시고 돌보고 계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 드립니다.
이런 감사 가운데서도 “오늘도 환자들이 찾아 올까?” 매일 반복되는 염려 이지만 아버지께서는 매일
15 명에서 20 여명까지 환자들을 보내 주십니다. 이 환자들과의 만남을 들여다 보면 정말

온 몸에 전율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연하게 찾아 오는 영혼은 없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과 인간이 얼마나 제 참 모습을 잃었는지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펜데믹의 상황
가운데서도 병과 환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치료를 하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눈이 심하게 내렸던 어느날 하루는 예상치 못한 정전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여섯 시간
동안 전기가 없어서
다른 의사들은 모두 퇴근을 했습니다. 저 보고도 퇴근을 하자고 했지만 저는 환자들의
예약을 취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근할 수 없다고 말하고 저는 어두워도 침을 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약 시간이 되자
환자들이 하나 둘씩 와서 자신들의 핸드폰으로 불을 밝혀 주고 저는 침을 놓았습니다.
아하… 닥터 리는
약속한 시간을 지키는 사람이구나! 어두운 가운데서 환자들의 도움을 받아 16 명을
치료하며 약간은 춥고
깜깜하지만 환자들과 더 가까와지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통하여 매월 약간씩 주시는 수입의 거의 대부분은 현지 회사 건축을 돕는
일과 시골 학교들을
돕는 일과 현지 회사 직원들 가운데 극빈자들, 중독자들 재활을 돕는 일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에서도 자신들의 월급으로는 점심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적은 액수지만
점심 식사와
생활비 일부를 도와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클리닉에 있기 때문에 아내가
동분서주 뛰어다니면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오고 가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디엔가에 매일
수 있어도 복음은 매일 수 없습니다.
이제는 환자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은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통로의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심으로 닮아 가는
한의사가 되기를 기도
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땅끝에서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하여
특별 헌금까지
하면서 열심을 내는 모습들을 보면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지난 세월 동안 우리 가정을 달려 오게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 입니다.
다가오는 복된 성탄과 2022 년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주님 오셨던 그 날 하늘에 울려 퍼졌던
영광의 찬송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하며,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소망으로
가득차 넘치시기를
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 차 넘쳐야 열방과 땅끝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차게 될
것을 믿습니다.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하늘의 지붕 파미르 고원이 있는 땅 ㅌㅈㅋㅅㅌ에서

2021 년 한 해를 은혜와 사랑과 기도와 후원으로 달려 온 이ㅅㅇ, 권ㅎㅁ 올림